

수능국어의 매뉴얼, 『10하원칙』 적용 해설지

지문과 문제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지문 보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문까지만 읽는다. 일치형 문제에서는 선택지의 맨 앞부분 주어나 시간, 공간, 조건 등을 읽는다. 영역 기호가 있다면 그 기호 끝에 문제번호를 적는다.)

그런 후 지금까지 살펴본 동일한 문제 세트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문단 단위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며 (회독으로 푸는 과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문을 읽을 때 표시하는 요소에도, 선택지 오답 기준에도 10하원칙이 적용되었다.

‘글’(지문과 선택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10하원칙 6WH2CR+서술어					
지문 표시 요소 = 중심 내용 파악 요소 = 출제 요소					선택지 오진술 구성 원리 기본 :(서술어) 단순 불일치 (10하)요소 바꾸기 요소 간 관계 바꾸기
주체	= 상황	Who	누가	주로 주어(A가, A는, A의 ~	주체 바꾸기
대상 (상대)		What	무엇을	주로 목적어(A를), 주어(A란), 부사어(A에 대해), 개념, 상대	대상 바꾸기 (주체와 대상의 방향 바꾸기)
시간		When	언제	배경(변화할 때 주의)	시간 바꾸기, 선후 바꾸기
공간		Where	어디서	배경(변화할 때 주의)	공간 바꾸기, 공간과 공간 바꾸기
원인 (과거)		Why	왜	~이므로, ~때문에	원인 바꾸기, 인과 바꾸기
목적 (미래)		Why	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자	목적 바꾸기
수단, 방법		How	어떻게	~를 통해, ~함으로써	수단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조건		Condition	상황과 맥락을 구체화	A의 경우, A라면, A라 하더라도	조건 바꾸기
기준		Criterion		A에 따라	기준 바꾸기
관계		Relation		- 비유·유추 관계 - 상하(포함) 관계 - 양자 관계(A는 B보다 크다) - 삼자 관계(A와 B는 반비례, A와 C는 비례) -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 - 전제 결론 관계	관계 바꾸기 - 문장 구조 관계 바꾸기 : 지문이나 보기에서 (A는) (B와 C를) 선지에서 (A와 B는) (C를) - 비교의 자리 바꾸기 -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바꾸기

[2026년 6월 시행] 소설 풀이 순서

1. 제목 본다

2. (앞부분, 또는 중략) 줄거리 읽는다. 인물, 배경(시간, 공간)에 표시하며 읽는다. 없으면 ->

3. 문제의 발문까지만 읽는다.

3-1. 서술상 특징은 형식 관련 문제라 가장 나중에 본다.

3-2. [A], [B]처럼 영역이 표시된 문제는 해당 영역 마지막에 문제번호를 적어 본다.

3-3. 인물(또는 배경)에 대해 묻는 문제는 선택지마다 맨 앞부분만 보면서 인물 이름에 괄호를 해준다.

3-4. ㉠~㉣문제는 어차피 읽어 내려가며 그때그때 풀 것이기 때문에 패스

4. <보기>문제는 박스 안에 있는 <보기> 내용을 정리한다. 주체, 대상, 시간, 공간, 목적, 수단, 조건, 기준, 관계 등에 유의하면서 정리한다. 주로 주어 목적어에 괄호, 표현방법에 밑줄, 그 효과에 괄호한다. (고정 아님. 자기가 지문이나 선택지와 대응시켜 보기 좋을 정도까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목적어에 괄호해 두는 것. 나타내고, 말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형상화(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님. 문항은 다 그러는 거니까.)하는 '대상'이 중요!

어떤 상위 개념 아래에 여러 하위 개념이 있으면 넘버링을 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문어 들었고, 희뜩 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랑택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랑택은 곧장 두철이를 목메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면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문힌 골무살*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는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19

(2)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건데…… 보자.

동식이가강 같이 오는 거 아니가? 그렇잖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돌인강?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리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기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빠다귀 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기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부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팡!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 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부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웁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20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짹짹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린다.

⑥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씹 훔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끼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쭐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거기?”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쌍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19

(1)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 골무살: '골목'의 사투리.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은 지문 읽기 작전에 아래 선택지마다 주어부에 괄호한다.)

-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 ③ 모량덕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 ⑤ 갑분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19. ㉠, ㉡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 위치를 찾은 후, 아래 선택지에서 ①②번을 좌측에 묶은 후, ㉠, ㉡가 있는 문단 끝에 문제번호 19를 써둔다.

- ① ㉠은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 ② ㉠은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 ③ ㉡는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중심인물의 능동성이 부각되는 나룻배와 차이가 있다.
- ⑤ ㉠의 시기에, ㉡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20.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끝에 문제번호 20 써두기.

-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뜨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③ '손가락들이 제가꿈'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아래 <보기>를 정리한 후, ㉠~㉣은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그때 풀다.

<보기>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이제 지문을 읽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음 쪽으로 간다. ->

- ①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③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며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꺾'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⑤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며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5. 지문 읽어 내려가며 다음을 행한다.

(가) 인물 중심으로 읽는다. 어떤 인물이 처음 나왔을 때 표시한 후, 이 새 인물이 주인공이나 앞서 나온 인물과 어떤 관계(갈등 관계, 친족 관계)에 있는지 파악한다.

(나) 시간 표시나 공간 표시에 표시하며 읽는다. (인물과 배경 표시는 줄거리 파악을 위한 것) 인물이 많아서 관호가 많으면 시공간 표시는 네모 활용.

(다) 중심 소재(편지, 거울 등)는 (사건 파악을 위해서) 표시. 이미 '서사적 기능' 문제로 출제돼 있는 경우가 많음.

(2) 지문을 읽어 내려가며 ㉠~㉢문제 해결 (앞뒤 문맥으로 풀다. 안 되면 전체 주제 속에서 풀다)

전체 주제 찾기 : 누가 누구와(갈등 관계) 무엇 때문에(갈등 원인) 갈등하나?
+ <보기> = 주제

6. <보기> 문제 해결

7. 줄거리 문제(인물, 시간, 공간 표시했던 거 참조) 해결

8. 서술상 특징 문제 해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물어 들었고, 희뜩 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겨울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랑댁)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랑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메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한겨울 하루는 또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면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살*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는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19->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현재형으로 끝난 이 마지막 문장은 아래 지문으로 이어진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냐?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건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냐? 21-> 그렇잖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꺾어버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

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도 수만도 아니다. 21->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21->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부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팡!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부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기꿈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옳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남자 여음 흘바지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20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닳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짹짹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린다.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삼바우가 한 일의 결과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싹 훔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뀌어 준다. 21->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쭐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거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쌍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람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냐?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21-> 19->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 골무살: '골목'의 사투리.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시간 순서 비틀기. 순경과 면 서기가 다녀간 사흘 후 동식이와 수안이가 떠남.**
-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 ③ 모랑덕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 ⑤ 갑분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19. ㉠, ㉡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은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 앞뒤 문장으로 보아 내적 갈등이 생겼던 공간**
- ② ㉠은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 ('적절한 것'으로서 답이 확실한 문제는 일단 다른 선택지들을 과측에 묶어두고 넘어가자. 시간 전락 차원에서 다른 문제들을 다 풀 후 돌아와서 점검해도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 이하 선택지 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 ③ ㉠은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이 해소**×**되는**반감**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 ④ ㉠은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결과**)는 점에서, **×**죽체를 바꾸기도 했지만 마을의 위기가 해결되었다(**결과**)고 보기도 어렵다.

중심인물의 능동성이 부각되는 나룻배**○**와 차이가 있다.

- ⑤ ㉠의 시기에, **시간 바꾸기** ㉡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죽체 바꾸기**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20.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③ '손가락들이 제가꿈'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팽'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 ①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 ②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 ③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바로 앞 문장에서 누군지 확인됨.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귀'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 ⑤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갈래복합 풀이 순서

1. 제목 본다

2. 문제의 발문까지만 본 후, 기호의 위치 확인, 문제번호 써두기

3. (시와 수필은) 지문 읽기 직전에 <보기> 정리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볼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싯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나) 23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땀 스며들었으리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 김기택, 「나무」-

(다) 25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보
 오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
 이다.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
 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보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
 시웁니다.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
 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이매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희희(戲戲)하며 꽃
 이 피고 나무와 별이 날며 넝닝거린다는 것은 여년(餘年)과 해골
 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27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
 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
 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히 끊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환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롭으로 수놓은
 청춘의 옷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
 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거
 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정지용, 「노인과 꽃」-

*노래: '늘그막'을 점잖게 이르는 말.

*고담한: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노경: 늙음의 때 또는 노년의 경지.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마지막에**

- 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기호 바로 옆에 문제번호 23 써두기.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풀기.
- ① '자리이리라'에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② '스며들었으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③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때문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④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 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⑤ '흘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가)시 읽기 직전에 (가)에 대한 설명까지만 읽은 후 (가)시를 읽자마자 ①번 풀기. ①번 정오 표시 후 <보기>의 (나)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나)시로 가서 이 기준으로 읽는다. / <보기>는 한 문단의 설명문이다. 이 정도는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보기>를 다 읽은 후, (나)시까지 읽고 와도 무방. 다만 <보기>를 읽을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서 대응되고 있는지 필히 체크.

<보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 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 ③ (가)의 화자는 '늙은 나무'의 '명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25.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기호 옆에 문제번호 25 써두기. 읽어 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풀기.
- ①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군.
 - ②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군.
 - ③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 있게 여기고 있군.
 - ④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끊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군.
 - ⑤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읽어 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풀기. 일단 앞뒤 맥락에 따라 풀어야 하므로 해당 연이나 해당 문단에 있는 기호 뒤의 문장들까지 읽고 와서 풀 것.
- ① ㉠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춰 서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 ② ㉡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볼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 ③ ㉢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 ④ ㉣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 ⑤ ㉤은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2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선택지의 기호 배열을 본 후, (㉤까지 읽어야 풀 수 있으므로) 지문에서 기호 위치 확인하기. ㉤가 들어 있는 문단 끝에 문제번호 27 써두기.
- ① ㉤는 '늙은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는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 ② ㉤는 '늙은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 ③ ㉤는 '늙은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는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다.
 - ④ ㉤는 '늙은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는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이다.
 - ⑤ ㉤는 '늙은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는 '노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제 (시)는 지문 읽기 직전에 <보기>를 읽으러 간다 ->

1. 시적 상황 (시 전반부) + 화자의 정서·태도·생각 (주로 시 후반부에, 시적 상황마다 병렬적일 수도) = 주제

2. 수필의 주제는 끝부분에(처음부터 읽다가 논리적으로 어려워지면 끝부분에서 주제 먼저 확인한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제목과 연결, 시적 대상 발견했지요. ㉠ ->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시적 대상의 상황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화자 정서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볼 성화,=꽃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화자
 태도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주어 병든 그 나무자연 결에서 서성거렸지요. ㉢->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화자의 소망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여름 이후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화자 소망
 24-① ->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나) 23(읽어 내려가면서 앞뒤 문맥에 따라 23번을 풀다)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제목 '나무'의 무늬가 보인다시적 상황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대상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화자 생각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상처 받았던 자리이리라
 나무의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 ->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 ->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목재 가구의 무늬를 바라보고 있는 중
 김기택, 「나무」-

(다) 25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뵈오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꽃을 심는 것에 긍정적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女色)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탐욕스러운 노인 <-> 꽃을 기르는
 노인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
 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年)에)노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뵈오니) 기록하시게도 정정하십시오.대조를 통한 강조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처듯 할 것을 보실 것이)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입니다.
 노인의 고담한* ㉠그들에 어린 자손이 희희(戲)하며 웃고 놀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거린다는 것은) 여년(餘年)상은
 세월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늙어감
 ㉢->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돌아가시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
 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히 끊는 정음이
 식고 호화롭고도 환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
 고)고독하고 한가함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
 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 일까 합니다. 노년과 청춘의 대조를 통한 노년의
 덕 예찬
 - 정지용, 「노인과 꽃」-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여느 꽃나무 <-> 늦된 그 나무
 (나) 견뎌야 했던 겨울 <->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가는 봄
 (다) 꽃을 심는 노인 <-> 여색을 기르는 노인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노인 <-> 꽃과 주검을 슬퍼하는 청춘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리이리라'에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② '스며들었으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③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때문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④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⑤ '흘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 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대상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들)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나)시를 읽으며 간다. ->

- >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 이제 <보기>의 (나)시에 대한 감상 기준을 읽은 후에 ->
-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 ③ (가)의 화자는 '늙은 나무'의 '명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뒤에 나오는 공동 서술부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 ○ / (나)의 '귀기울임은' 주체: 나무, 주체 바꾸기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 난폭한 힘과 거대한 힘은 동일한 외부적 시련을 X 대상 바꾸기 향한 화자의 기원이 X 담긴 점에서, /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25.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등이 굽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군.
- ②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기록하게 여기고 있군.
- ③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 있게 여기고 있군.
- ④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X (노인은) 슬퍼할 것 X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끊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군. 주체 바꾸기
- ⑤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 ① ㉠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춰서 버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 ② ㉡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제자릴 찾지 못하는 시간, 앞뒤 문맥으로 판단한다.
- ③ ㉢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 ④ ㉣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 ⑤ ㉤은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은 '늙은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은 '노인'이 생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 ② ㉠은 '늙은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은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앞뒤 문맥으로 판단.

앞줄 아름답디 ㉠그들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희희(戲戲)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넝닝거린다는 것은

- ③ ㉠은 '늙은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은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다.
- ④ ㉠은 '늙은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은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이다.
- ⑤ ㉠은 '늙은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은 '노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다.

소설 풀이 순서

1. 제목 본다

2. (앞부분, 또는 중략) 줄거리 읽는다. 인물, 배경(시간, 공간)에 표시하며 읽는다. 없으면 ->

3. 문제의 발문까지만 읽는다.

3-1. 서술상 특징은 형식 관련 문제라 가장 나중에 본다.

3-2. [A], [B]처럼 영역이 표시된 문제는 해당 영역 마지막에 문제번호를 적어 본다.

3-3. 인물(또는 배경)에 대해 묻는 문제는 선택지마다 맨 앞부분만 보면서 인물 이름에 괄호를 해준다.

3-4. ㉠㉡문제는 어차피 읽어 내려가며 그때그때 풀 것이기 때문에 패스

4. <보기>문제는 박스 안에 있는 <보기> 내용을 정리한다. 주체, 대상, 시간, 공간, 목적, 수단, 조건, 기준, 관계 등에 유의하면서 정리한다. 주로 주어 목적어에 괄호, 표현방법에 밑줄, 그 효과에 괄호한다. (고정 아님. 자기가 지문이나 선택지와 대응시켜 보기 좋을 정도까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목적어에 괄호해 두는 것. 나타내고, 말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형상화(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님. 문항은 다 '형상화하'는 거니까.)하는 '대상'이 중요!

어떤 상위 개념 아래에 여러 하위 개념이 있으면 번호링을 한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내 금일 절에 가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28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 왈,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흥계를 알리오.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왈각 성내어 왈,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렇듯 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닢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이때에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절

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절의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28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 대왈,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젖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A]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 높은 피에 올라보니 관군이 몰려 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 왈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소이다.” 30

길동이 웃어 왈,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칭하리오.”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 온 재물을 헤아려 본즉 수만금 일러라.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 주고 마을 어귀에 별호를 활빈당이라 칭하고 하령하여 왈,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거든 재물 주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치 말고, 열읍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2)
 [중략 부분의 줄거리]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 문제의 발문 보러 ->

차설.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일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십만이고 보군이 십만일러라. 일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울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 없더라.

각설. 수월 만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고 울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하니라. 율왕이 뜰어 보니 하였으되,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율왕에게 말하느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리하므로 성탕이 곁을 치시고 무왕이 주를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뿔뿔한 일인 고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아 위엄을 뵈나니, 율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 않고 모두 쳐치할 것이니, 재삼 생각하여 하라.”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 왈,

“무명 소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뉘 능히 내 근심을 떨리오?”

하되, 제신이 아뢰어 왈,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왈,

“적병이 ⑥성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오.” 29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

(1) 길동, 오랜만~ 「홍길동전」-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 선택지의 기호 배열을 본다. ①②③번 외측에 묶은 후, 선택지 ㉠, ㉡에 각각 문제번호 28 써두기.

- ①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겠군.
- ②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겠군.
- ③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겠군.
- ④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되겠군.
- ⑤ ㉡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되겠군.

2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와 ㉣을 보니, ㉢까지 읽어야 풀이 가능. ㉣근처에 문제번호 29 써두기.

- ① ㉢는 ㉣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 ② ㉢는 ㉣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 ③ ㉢는 ㉣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④ ㉢와 ㉢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30. 다음은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말씀은 감상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금 읽는다.

<보기>

선생님: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인 결과'가 포함돼요.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속임수담이 나타난 장면인 [A]에 대해 이해한 바를 말해 볼까요? [A] 끝에 문제번호 30 써두기.

학생: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 ②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③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④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를 정리한 후 (기호가 없는 인물, 시간, 공간 등 줄거리 문제가 없으므로, 아래 선택지 앞부분에도 길동이란 나오므로) 지문 읽기 시작 ->

<보기>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일본바선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①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율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하여 욕망을 실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길동이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탕'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율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율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5. 지운 읽어 내려가며 다음을 행한다.

(가) 인물 중심으로 읽는다. 어떤 인물이 처음 나왔을 때 표시한 후, 이 새 인물이 주인공이나 앞서 나온 인물과 어떤 관계(갈등 관계, 친족 관계)에 있는지 파악한다.

(나) 시간 표시나 공간 표시에 표시하며 읽는다. (인물과 배경 표시는 줄거리 파악을 위한 것) 인물이 많아서 관호가 많으면 시공간 표시는 네모 활용.

(다) 중심 소재(편지, 거울 등)는 (사건 파악을 위해서) 표시. 이미 '서사적 기능' 문제로 출제돼 있는 경우가 많음.

(2) 지운을 읽어 내려가며 ㉠~㉢문제 해결 (앞뒤 문맥으로 풀다. 안 되면 전체 주제 속에서 풀다)

전체 주제 찾기 : 누가 누구와(갈등 관계) 무엇 때문에(갈등 원인) 갈등하나?
+ <보기> = 주제

6. <보기> 문제 해결

7. 줄거리 문제(인물, 시간, 공간 표시했던 거 참조) 해결

8. 서술상 특징 문제 해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내 (금일) 절에 가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28 ->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 왈,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흥계를 알리오. 서·개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왈각 성내어 왈,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렇듯 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 해당 관청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났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이때에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절의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

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28 ->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 대왈,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젖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A]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중의 옷을 입고 송낙중의 모자를 쓰고 높은 뒷에 올라보니 관군이 몰려 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 왈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소이다.” 30 ->

길동이 웃어 왈,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칭하리오.”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 온 재물을 헤아려 본즉 수만금 일러라.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 주고 마을 어귀에 별호를 활빈당이라 칭하고 하령하여 왈,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거든 재물 주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치 말고, 열읍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28

[중략 부분의 줄거리]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

차설 한편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일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십만이고 (보군이) 십만일러라. (일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를 이 없다 하니, 인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거겠네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 없더라.

각설, 한편 수월 만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고 울도국 왕에게 격서 <급히 전하는 글, 꾸짖는 글>를 전하니라. 울왕이 뜬어보니 하였으되, 거기에 써 있기를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울왕에게 말하느니, 대저 못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하므로 성탕이 겉을 치시고 무왕이 주를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뒤흔한 일인 고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아 위엄을 뵈나니, 울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하면, 조상 항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나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 않고 모두 치치할 것이니, 재삼 생각하여 하라.”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 알,
 “무명 소적이 이름 없는 작은 도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누 능히 내 근심을 덜리오?”
 하되, 제신 여러 신하이 아뢰어 알,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가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알,
 “적병이 ⑥ 설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요.” 29 ->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

- 「홍길동전」 -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①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군. 지금까지의 정보는 풀 수 없음. 이럴 때 <중략> 전까지는 읽어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한 후, 중략 전에 문제번호 28 써 둬. 시선이 여기까지 온 김에 아래 ㉡③번 선택지를 읽은 후 지문을 읽으면 그렇지 아닌지 우리 머리가 알아서 작동함. 다시 지문 읽으려 ->
- ②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었군.
- ③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었군. 내용상 주체를 바꾸었지만, '절의 나무하던 놈'으로 바꾸어도 ㉠에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되었군. ○
- ⑤ ㉡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되었군. ○

해인사 성

2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 ① ㉠는) ㉡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확인한 후, 맞다면, '~와 달리' 이 부분을 나중에 살펴볼 것.
- ② ㉠는) ㉡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 ③ ㉠는) ㉡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④ ㉠와 ㉡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30. 다음은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보기>

선생님: 선생님: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인 결과'가 포함돼요.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속임수담이 나타난 장면인 [A]에 대해 이해한 바를 말해 볼까요?

학 생: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 ②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③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④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대상 바꾸기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5

<보기>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울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본 비선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①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울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하여 욕망을 실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길동이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탕'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울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길동이 울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x (울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 알 수 있군.

1. 제목 본다

2. 문제의 발문까지만 본 후, 기호의 위치 확인, 문제번호 써두기

3. (시는) 지문 읽기 직전에 <보기> 정리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열음 위에 맺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열음 위에 맺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32

[B]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C] 낮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낮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나)
 시름을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33
 - 김수장-

(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칠녕쿨이 되
 어
 그 나무에 그 칠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윽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
 져 감겨 있어
 동 선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32. [A]~[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선택지에서 [A]~[C]의 배열을 본 후, [A] 끝에 문제번호 32 써두기.**

- ①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요하면 (나)를 다 읽은 후에 본다. (나)시의 끝부분에 33.**

- ①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정리 후, 아래 선택지의 배열을 본다. 각 시를 읽고 와서 실시간으로 본다.**

<보기>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기호만 안 썼지,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다. 자주 이렇게 진술하니 참조할 것.**

-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군.
-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다)에서 ‘칠녕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군.
- ④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군.
-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칠’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 것이군.

1. 시적 상황 (시 전반부) + 화자의 정서·태도·생각 (주로 시 후반부에, 시적 상황마다 병렬적으로 따라 나올 수도) = 주체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열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열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32->

[B]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32->

[C] 낮이라도 입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낮이라도 입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32->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나)
 시름을) 꺼내 들어 엮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 김수장-

(다)
 임이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칠퉁쿨이 되
 어
 그 나무에 그 칠퉁 낚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윙게 감아 엮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급도 빈틈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
 쳐 감겨 있어
 동 선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32. [A]~[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 ① [A]에서 화자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입에게 전달하고 있다. ×
- ③ [C]에서 화자는, 입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원망
- ④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입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 ⑤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 ①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엮어 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앞뒤 맥락을 보면 이리저리 떠다니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시름'. 주체 바꾸기.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

〈보기〉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 ① (가)에서 '입'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군.
-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다)에서 '칠퉁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군.
- ④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낚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특정한 상황으로 입과 하나가 된 현재를) <- (가)는 입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는 소망을, 모두 × 강조한 것이군.
-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칩'이 되어 '입'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 것이군.

『10하원칙』 문제풀이법과 풀이순서, 교재구성
 특허출원번호 10-2023-0052996